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9,900원 인상
유급 대체휴무 쟁취
실질적 위험성평가 시행!

제07호 / '15.6.22(월)

발행처: 선전부 | 발행인: 조민제 |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 전화: 043-236-5077 | http://dc.kmwu.kr

교섭결렬!!

사측, 8차 교섭까지 의미없는 제시안만 제출

2차 제시안 나왔지만..

8차 지부교섭이 18일(목) 대한이연에서 진행됐다. 중앙교섭이 결렬된 상황이지만 지부교섭위원들은 원만한 지부교섭 타결을 위해 한 주 더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만큼 사용자측의 성의있는 제시안을 기대했다. 그러나 사측이 준비한 2차 제시안은 1차 제시안에서 전혀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 지부 교섭위원들은 2차 제시안을 받고나서 1차 제시안과 다른 점이 뭔지 알 수 없어 황당해하기도 했다.

기적으로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2) 회사는 제 1항의 재해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재해의 빈도와 강도의 원인(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 등)에 따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보위에서 논의한다.

성의있는 교섭 좀 합시다

지부 교섭위원은 그동안 누차 성의있는 제시안을 요구했다. 올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는 투쟁은 임단협 결과랑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임단협은 조기에 타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사측은 단 2차례 제시안을 준비했을 뿐이다. 그마저도 아주 형편없는 수준의 내용이고, 임금 인상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검토할만한 제시안은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금속노조는 23일 일괄 조정신청에 돌입한다. 지부도 지부교섭 참가 사업장 뿐만 아니라 대각선교섭 사업장도 전부 조정신청에 돌입한다.

벌써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다. 기분좋은 마음으로 조합원들이 휴가갈 수 있도록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한다.

2차 제시안

1. 2015년 임금인상

추후 각 회사별 제시

2. 유급휴일

설날연휴(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연휴(음력 8월 14일, 15일, 16일)가 일요일과 중복시 노사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단, 각 사별 단협이 이보다 상회할 경우 각 사의 단협에 따른다.

3. 위험성 평가

1) 회사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정

8차 교섭 속기록

교섭결렬을 선언한다

사 : 시간이 참 빠르다. 다들 아시다시피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메르스까지 해서 고민이 많고 긴장이 많이 된다. 우리 지부의 각 회사들도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조율하기도 어렵고 난제도 많다. 현재 임금구조나 단협이 경영악화로 치달을 때 부담스러운 것도 많다. 작은 부분 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게 고민하고 이해해야할 시점인 것 같다. 조마간 서로가 많은 것을 해결하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합심해서 나가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겠다.

노 : 오늘 코스모링크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다. 사무실 직원이 쓰러져서 이송하던 중 돌아가셨다고 소식 들었다. 나이도 적다고 하던데 안타깝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발표했다. 자율적인 노사관계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임단협 시기에 밀어부쳐서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상당히 불순하고 어이없다. 메르스는 지난주에 소강국면이라고 하더니 끝나지 않고 있고, 가뭄으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고 있다. 자연스럽게 농수산물 가격 인상, 공공부문 가격 인상으로 기업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교섭을 통해서 현명하게 노사가 머리 맞대고 이 어려운 국면을 같이 빠져나갈 고민이 이뤄졌으면 한다.

사 : 지부속보를 보니 23일 조정 들어간다고 예고하셨다. 조정신청 들어가는데 제시안을 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논의가 있었다. 다른 지부와 다르게 지부장

님이 의지를 보여주셨던 걸 감안해서 안을 준비했다. 사용자협의회 중앙과 조율이 안되었다는 걸 감안해서 받아주시면 좋겠다.

〈2차 제시안 제출〉

노 : 안을 검토해봤는데 수용할 수 있는 안이 아니다. 오늘 지부교섭도 결렬해야할 것 같다. 의견이 접근되지 못해 상당히 유감스럽다. 7/7경 중앙교섭이 재개될 것 같다. 지부교섭도 그 주에 재개할 것 같다. 사측도 일정을 감안해달라. 교섭은 결렬을 선언하겠다.

사 : 관행을 좀 바꿨으면 하는 희망이 있는데 어렵다. 더 나가야되는 곳도 있고 쫓아오기 힘든 곳도 있다. 우리 지부는 그나마 노사가 양호한 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상황이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 빠른 시간 내에 종결짓고 미래를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